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렘 37:9)

벧엘교회로 초대합니다

대부흥전도주일
2026.10.4~25

위기 당한 사람을 당신이 구했다면 평생 자부심을 느끼겠지요? 정말 어려운 사람
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뿌듯하고 넓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
다. 이처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세상에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건 어두운 세상을 밝
히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일이 되지요. 이런 일을 하면 도움 받은
사람보다 도움을 준 자신이 더 기쁨을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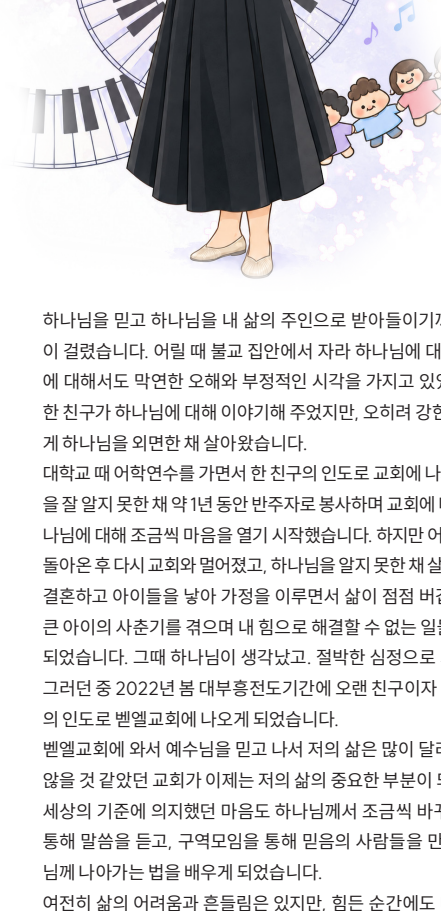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이
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갔는데, 보니 사람들이 죽은 뼈들
이 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밖에 없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으니, 너희는 살
아나리라.” 그렇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순종하여 그대로 외쳤더니 뼈
들이 서로 맞아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 군대를 이끄는 자, 다윗과 같은 왕, 목자가 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은 자의 뼈 같은 존재들이 생명을 얻고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같은 종이기도 하고, 다른 자보다 먼저 그리스도로 생기를 얻은 군
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 외치면 죽음과 절망밖
에 없는 뼈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게 되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멋진 일인가요! 세상의 군사는 사람을 살리게 하거나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는 사람을 살리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을 해보지 않았습
니까? 생명을 우리가 불어넣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하나
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여봅시다.

박광석 목사

나는 생명 얻은 군사

정은정 집사 (i-3교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저에게는 오랜 시간
이 걸렸습니다. 어릴 때 불교 집안에서 자라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교회
에 다니며도 막연한 오해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만, 오히려 강한 거부감이 들었고, 그런
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대학교 때 어학연수를 가면서 한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
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약 1년 동안 반주자로 봉사하며 교회에 다녔고 그 시간을 통해 하
나님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학연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다시 교회와 멀어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가정을 이루면서 삶이 점점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큰 아이의 사춘기를 겪으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각났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봄 대부흥전도기간에 오랜 친구이자 벧엘교회 집사였던 친구
의 인도로 벧엘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벧엘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절대 다니지
않을 것 같았던 교회가 이제는 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에 의지했던 마음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구역모임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며, 기도를 통해 하나
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흔들림은 있지만, 힘든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
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
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제자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
아가며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로 삼아주시신 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
운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군사 ①

김채희 청년 (II-청년2부)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4년째 동양화 화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가르치는 공간
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곳이 그림을 통해 잠시 쉬어가며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실에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으시는 분, 태교를 위해 오시는 분, 혹은 힘든
상황 속에서 잠시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 오시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일상의 걱정과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림을 그리며 나누는 작은 담소 속에서도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고 노
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군사인 성도로서, 저는 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화실
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삶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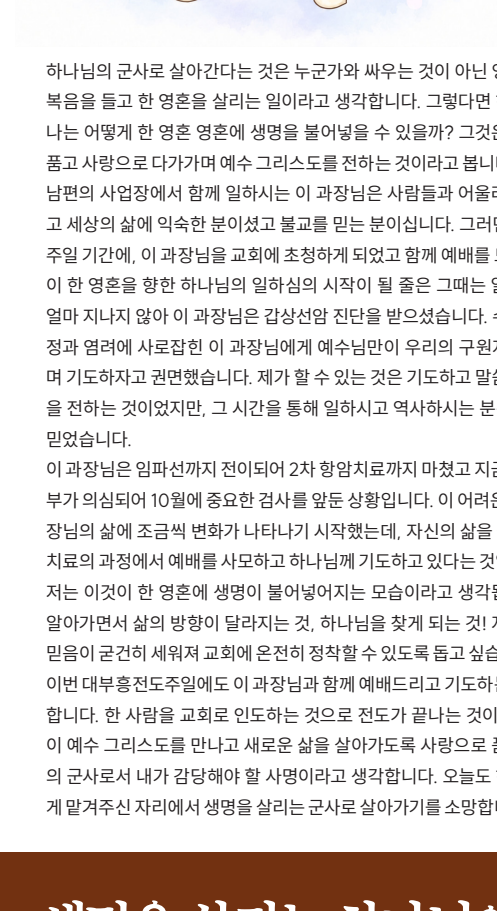
저는 이 말씀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지친 마음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생
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미술이라는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
고,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생명을 살리는 군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군사 ②

양미영 집사 (II-2교구)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손 내미는
생명을 살리는
군사로서의 삶을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겠습니다.

“아빠가 너 태어날 때 우셨잖아~”로 시작된 친정엄마의 무심한 이야기는 제가 다
섯 번째 딸로 태어나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대학시절에 도서관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는 말씀을
발견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남을 실망스러워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태에 짓기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고, 저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저를 아끼고 계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고 싶다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는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활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열
심히 했지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며 제 신앙은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세 아
이를 키우며 학교와 집을 오가는 일상은 지쳐만 갔고 마음은 곤고해졌습니다.

어느 날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말씀에 대해 갈급함
으로 찾은 벧엘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
러나 말씀의 은혜 속에서도 현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ADHD인 아
들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와 남편과 아들의 갈등으로 인하여 저는 너무 힘들었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주시나!’라는 원망과 억울함이 올라와 눈
물이 멈추지 않게 되어 금요밤기도회에 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순
간, 하나님은 나의 감추진 죄를 보게 하였고 죽어 마땅한 저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날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학교에서 자녀로 인해 아픔을 겪는 부
모님과 만나 상담하며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로 돕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또 우
울과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만나 상담과 기도로 돕는 일을 하게 되었
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군사로 매일 매일 만나처럼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손 내미는 생명을 살리
는 군사로서의 삶을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것인가?

고혜란 집사 (i-5교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군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닌 영적 전쟁 가운데
복음을 들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사인
나는 어떻게 한 영혼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로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다가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남편의 사업창에서 함께 일하시는 이 과장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
고 세상의 삶에 익숙한 분이셨고 불교를 믿는 분이십니다. 그러던 중 대부흥전도
주일 기간에, 이 과장님을 교회에 초청하게 되었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과장님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격
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이 과장님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
며 기도하자고 권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복음
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만났습니다.

이 과장님은 입암전까지 전이되어 2차 항암치료까지 마쳤고 지금은 간에 전이 여
부가 의심되어 10월에 중요한 검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과
장님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힘든
치료의 과정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 영혼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저는 이 과장님의
일음이 곧 건히 세워질 교회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번 대부흥전도주일에도 이 과장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으로 품는 것이 하나님
의 군사로써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
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군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렘 37:9)

대부흥전도주일 2026. 10. 4~25

2026-2 대부흥 전도주일 미취학부 공연 안내

일 산 (i) 영유아부 (24~22년생)

인형극
커다란 사과가 쿵!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커다란 사과가 쿵 떨어졌어요!
이 커다란 사과를 어떻게 할까요?

날짜: 10월 25일(주)

▶시간: 10시, 12시, 2시 ▶장소: 5층 유아부실

2부 활동 I 오감 놀이 “감사의 춤을 추어요, 파스타 놀이”

일 산 (j) 유치부 (21~20년생)

탈 인형극
최고의 이발사 대결

브레드 이발소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이발사 대결!
하나님께서 주신 멋진 재능을 마음껏 뽐내보아요!

날짜: 10월 25일(주)

▶시간: 10시, 12시, 2시 ▶장소: 5층 유치부실

2부 활동 II 브레드 이발소 보석십자수 키링 만들기

은 정 (II) 영유아유치부 (24~20년생)

뮤지컬
사과는 맛있어!

아삭아삭 맛있는 사과!
백설공주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날짜: 10월 25일(주)

▶시간: 10시, 12시, 2시 ▶장소: 2층 유치부실

2부 활동 I 쿠잉스쿨 “젤리 공주”, 컵케익 만들기